

KCC, 보온단열재 클로버 5개 획득

<글라스울 Flive> <마이톤>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등급 인정받아

금강고려화학(KCC, 대표 김춘기)가 출시한 보온단열재 <글라스울-Five>와 불연흡음 천장재 <마이톤>, <마이텍스>가 글라스울 전자재업계 최초로 친환경건축자재(HB: Healthy Building Material) 인증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.



한국공기청정협회가 주관하는 친환경건축자재 인증제도는 국산 및 수입 전자재를 대상으로 Formaldehyde(HCHO) 및 VOCs의 방출강도를 소형챔버법을 통해 평가해 시험결과에 따라 클로버 1개부터 5개로 등급을 나누어 HB마크를 부여하는데, KCC의 <글라스울-Five> 등은 최우수 등급에 해당하는 클로버 5개를 획득했다.

<글라스울-Five>는 유리원료를 고열 액화시켜 고속 회전원심공법으로 만든 무기섬유단열재로 난연1급의 불연자재이며 용도 및 공법에 따라 <크린롤>, <크린매트>, <크린보드>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에 적용할 수 있다.

KCC는 “<글라스울-Five>는 오염물질 방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시켜 친환경건축자재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환경마크 GR(Good Recycled) 인증도 받아 자원재활용 및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또한 미네랄울을 주원료로 한 불연흡음천장재인 <마이톤>, <마이텍스>는 모래코팅 후 도장해 PIN 무니를 가공하는 방식으로 제조하는데, KCC 관계자는 “오염물질 방출이 거의 없어 학교, 병원, 복지시설 등 어린이와 노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시절의 천장재에 적합하다”고 강조했다.

KCC는 <글라스울-Five>와 <마이톤>의 HB마크 인증 외에도 페인트, 바닥재 등 모든 건축관련 제품의 친환경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. <주인경 기자>

<화학저널 2004/12/09>